

(영국) 해외관광시장 동향 - 2026년 7월

'26. 7월 / 한국관광공사 런던지사

□ 영국 방한시장 일반

○ 한국 ↔ 영국간 관광교류 현황

- 한국인⇒영국 방문 감소세('23년 182,000→'24년 169,000, △7.1%)
- 영국인⇒한국 방문 증가세('26년 1~6월 103,787명, 전년比 +22.1%)

(단위 : 명)

연도	영국→한국	한국→영국	비고
2019	143,676	301,000	
2023	121,376	182,000	
2024	147,493	169,000	
2025	171,940	통계 미발표	
2026. 1~6월	103,787	통계 미발표	

* 한국인 영국방문 통계 <https://www.visitbritain.org/research-insights/inbound-markets>

* 영국인 한국방문 통계 한국관광공사 내부통계자료 참고

○ 한국 포함 아시아 주요 국가 영국인 방문 통계

(단위 : 명)

연도	태국	싱가포르	일본	홍콩	한국	대만
2019	946,774	607,821	424,383	470,295	143,676	115,641
2024	965,862	579,516	437,230	294,438	147,493	96,237
2025	1,083,162	587,356	535,004	339,097	171,940	108,078
2026	542,810 (1-6월)	281,507 (1-6월)	286,600 (1-6월)	169,332 (1-5월)	103,787 (1-6월)	52,973 (1-6월)
26/25증감 (전년 동기)	△5.1%	△7.5%	+5.8%	+12.2%	+22.1%	△5.0%

* 국가별 관광공사 공식 홈페이지 통계 참조

○ 영국(히드로 공항)→한국(인천 공항) 항공노선 현황 ('26.7월 현재)

항공사	코드	출발시간	편수	편당 좌석수	주간 좌석수
대한항공	VS208	20:10	주7편	282	1,974
아시아나	KE908	19:35	주7편	311	2,177
버진애틀란틱	OZ522	14:10	주7편	258	1,806

* '26년 하계스케줄 기준. 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

□ 7월 주요 동향

(영국정부)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업계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, 불확실한 중동 정세에 따른 자국민 해외여행 안전 모니터링 지속

○ 영국·그리스 정부, 관광부문 최초 양해각서 체결

- 두 정부 간 관광혁신 및 지속가능관광, 관광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MOU를 체결.
- 주요 협력분야는 관광투자, 창업지원,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, 지속가능 관광, 관광인력 양성 교육 등임
- 특히, 영화(Film tourism), 문화(Culture), 미식(Gastronomy), 농촌(Rural) 등 각국 테마관광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로 합의
- * 영국인의 연간 그리스 방문 규모는 약 500만 명 수준, 영국 방문 그리스 관광객 규모도 팬데믹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

○ 영국관광공사(VisitBritain), 한국·일본 동북아 시장 타깃 영국의 지역관광을 적극 홍보

- VisitBritain은 런던에 집중된 인바운드 관광수요 지방분산을 위해 6월말~7월초 한일 여행업계, 언론인 대상 팸투어(Fam tour)를 진행
- * VisitBritain은 '26년 일본인 방문객은 전년대비 18% 증가 수준인 약 27.6만 명, 한국인 방문객은 27% 증가 수준인 20.4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

○ 영국 외교부,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해외여행 주의 당부

- 영국 외교부(Foreign office, FCDO)는 최근 중동 국가에 대한 해외여행 안전 권고를 업데이트 함.
- 터키, 요르단, 오만,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 5개국 추가공격 가능성으로 항공편 취소 및 영공폐쇄 가능성에 유의할 것을 경고
- 단, 금번 권고는 여행제한, 금지조치는 아니며 안전 유의 권고임.

(항공/여행업계) 중동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전세기 증편, 여행상품 프로모션 등 공급 증가 추세

- 브리티쉬 항공사(British Airways) 6개 장거리 노선 신규취항
 - 브리티쉬 항공사는 '26.6월~'27.3월 기간 중 일평균 94편의 장거리 노선을 운항할 예정.
 - 이는 장거리 운항 규모를 기존대비 5% 상향 수준이며, 특히 7월 신규 취항하는 런던↔미국 올란도 노선은 4년만에 재개라고 함.

< British Airways 신규 증편 계획 >

신규 취항일	항공 노선	운항 계획
26년 7월 21일	히드로(LHR) → 올란도(MCO)	주 3회
26년 10월 23일	개트윅(LGW) → 콜롬보(스리랑카)	주 3회
26년 10월 25일	개트윅(LGW) → 바베이도스	일 1회
26년 10월 25일	히드로(LHR) → 산호세(코스타리카)	주 5회
26년 10월 25일	히드로(LHR) → 탬파(TPA, 미국 플로리다)	주 5회
27년 1월 8일	히드로(LHR) → 멜버른(쿠알라룸푸르 경유)	일 1회

- 런던 개트윅(Gatwick)공항, 중국 청두 직항 노선 운영
 - 중국 국영 항공사 에어차이나(Air China)가 런던-청두 직항을 개설.
 - 이번 여름 성수기 시즌 한정으로 주 3회 운항예정이며 이로서 에어차이나, 동방항공, 남방항공, 베이징 캐피탈 등 4개 항공사가 중국 6개 도시와 영국 건 주당 총 61편의 항공노선을 운항할 예정
- easyJet(이지젯) 항공사, 여름방학 기간 사상최대 규모 항공편 운영
 - 이지젯 항공사는 영국 학교방학 기간 전 세계 노선 8만편을 운항할 예정이며, 여름시즌 전체로는 38만편 이상 항공편 운항 예정임
 - 이와 더불어 항공사 자회사인 이지젯 홀리데이는 무료 어린이 동반 프로그램 등 가격할인 판촉으로 해외여행 수요 도모 예정

(관광 수요) 영국인 해외여행 수요는 여전히 건재. 영국 소비자들은 여행안전에 관심 증가. 이에 따라 영국 여행업협회는 올 여름 단거리(유럽 등) 수요가 장거리 대비 우세할 것으로 예상.

○ 미국-이란 종전 합의로 영국시장 3분기 해외여행 수요 증가 전망

- 영국 여행전문 매체 Travel weekly에 따르면 설문응답자의 약 29%가 향후 3개월 내 여행할 확률이 '아주 높음'이라고 답변, 이는 지난 5월 조사대비 3%p가 증가한 것이며 3%p는 성인 160만명 규모를 의미.
- 여행계획 '불확실(Not confident)' 응답자는 지난 4월 대비 10%p 하락.
- 한편, 여행계획 예정일은 응답자 중 43%는 '중동 상황에 따른 차질 가능성'으로 인해 ATOP 보호를 받는 패키지상품을 고려한다고 응답.

* ATOL-protected holiday : 영국 정부가 보호하는 패키지여행 제도(항공사나 여행사가 파산해도 환불, 귀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)를 적용받는 상품

○ 미국-이란 종전 합의 후 여름휴가 예약률 반등

- Jet2 holiday는 종전합의 후 예약률이 전년비 7.1% 상승, 전쟁 종결 시 까지 예약을 미루고 있는 수요 감안 시 시장회복이 긍정적이라고 전망.

○ 영국 여행업계, 아웃바운드 시장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분석

- 국내외 정세불안에도 해외여행 수요가 여전히 높으며, 유럽 출입국 시스템(EES)에도 불구하고 그리스, 카나리아 제도, 스페인 등 지중해 여행지들이 여전히 영국인 여름 아웃바운드 수요에 압도적이나 선호를 보임

< 영국 여행업계 선정 2026년 인기 해외여행지 Top 5 >

구분	단거리	장거리
1	스페인 카나리아 제도	미국 플로리다
2	튀르키예	캐리비안 제도
3	스페인 본토	태국 (아시아)
4	그리스	멕시코
5	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	몰디브

- 영국 여행업협회(ABTA, Association of British Travel Agents), 올 여름 영국인 휴가 목적지는 단거리시장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
 - ABTA 조사에 따르면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수요자 84%는 이번 여름에는 목적지 선택으로 단거리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고 함.
 - 또한, 영국 성인 31%는 미-이란 중동분쟁 전 대비 여행 전문 서비스를 이용 의향이 높다고 답변. 여행일정 관리 및 만약사태(취소, 환불, 대체 일정 수립) 가능성으로 개별 예약보다 여행서비스 대행을 선호.
 - 이는 항공편 취소, 정부 여행자제 권고 등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단거리여행, 여행사 서비스 이용이 기존보다 선호되고 있음.

(한국 관련) 영국 국왕 여동생 앤 공주 한국방문, BTS 런던공연 등 주요 이슈 외 한국 의료관광 등 관광 관련 보도 지속

- Anne 영국 왕실 공주, 한국 방문기간 한국 대학 내 AI로봇 시설 방문
(출처 : The independent, 7.15)
<https://www.independent.co.uk/news/uk/home-news/princess-royal-anne-south-korea-robot-b3015279.html>
- 6년만의 BTS 런던공연, 런던을 K-컬처로 열광하게 하다
(출처 : BBC, 7.11, 토)
<https://www.bbc.co.uk/news/articles/cx2wzx7gqpro>
- 미국인들, K뷰티 및 성형시술을 넘어 건강검진, 예방의료 서비스를 위한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
(출처 : The Guardian, 7.22)
<https://www.theguardian.com/culture/2026/jul/18/black-american-women-south-korea-healthcare>
- 여행전문가 추천하는 11월에 가볼만한 13개 여행지에 '서울' 선정
(출처 : Conde Nast Traveller, 7.2)
<https://www.cntraveller.com/gallery/best-holiday-destinations-in-november>

□ 지사 종합 의견

- 중동정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하계 휴가기간 아웃바운드 수요는 여전히 강세임. 전통적인 여름 휴가지인 남부 유럽, 남아메리카, 태국 등 '휴양지 성격의 해외여행 목적지'가 영국인들에게는 인기임. 정세 불안 영향으로 단거리(유럽) 시장이 높은 선호 추세임
- 하계 휴가시즌은 영국 방한시장 관점에서 상대적 비수기임. 봄철, 가을철 대비 방한입국자 수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. 다만 태국, 일본 등 아시아 경쟁국 대비 방한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('26.1~6월 영국인 입국통계 기준) 이는 K-컬처 인기, 국가 이미지 개선 등 여행목적지로서 한국관광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됨.
- 직항 항공노선 증편(Virgin Atlantic, '26.3월) 및 BTS 런던공연, 영국 앤 공주 한국 방문 등 한국 관련 이슈가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 지속으로 3분기 방한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.

□ (참고)동향 출처

- 영국정부 보도자료 (7.2 목)
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news/stronger-tourism-ties-between-uk-and-greece-under-new-memorandum-of-understanding>
- 영국관광공사 보도자료 (7월)
<https://www.visitbritain.org/news-and-media/industry-news-and-press-releases/visitbritain-courts-north-east-asia-culture>
- Travel gossip(7.23 목)
<https://travelgossip.co.uk/latestnews/foreign-office-issues-new-travel-advice-for-several-countries-including-turkey/>
- Simpleflying(7.6, 월)
<https://simpleflying.com/british-airways-launches-6-new-long-haul-routes-from-london-see-all-flights-now/>

- The guardian(7.8, 수)
<https://www.theguardian.com/business/2026/jul/08/summer-holiday-bookings-bounce-back-jet2>
- Travel weekly(7.9, 목)
<https://travelweekly.co.uk/news/research-highlights-rising-consumer-confidence-and-demand-for-packages>
- Travelmore(7.13, 월)
<https://travelmole.com/news/abta-says-uk-travelers-opt-for-short-haul-trips-this-summer>
- Travel weekly(7.15, 수)
<https://travelweekly.co.uk/news/sixth-china-route-from-gatwick-opened-amid-strong-demand>
- travelmole(7.21, 화)
<https://travelmole.com/news/easyjet-and-easyjet-holidays-set-for-biggest-ever-summer-with-80000-flights>
- Selling Travel(7.22, 수)
<https://www.sellingtravel.co.uk/agents-reveal-the-10-destinations-generating-the-most-summer-bookings/>